

특별기고



정기연 주필

### 방관자의 말로는 죽음뿐이다

는데 고막원 언덕길에서 차가 갑자기 멈췄다. “손님 여러분! 잠깐 길가의 불을 끄고 가겠습니다.” 하며 기사는 차에 실린 소방도구를 가지고 내려 길가에서 산으로 타들어 가는 불을 끄고 있었으며 승객들은 차에서 내려 기사가 불을 끄는 장면을 칭찬하고 도왔으며 불을 다 끈 후 다시 차가 출발했다. 다른 차들은 보지 못했는지 모르나 불은 먼저 본 사람이 끄는 것이 조기 진화다. 기사의 투철한 시민 정신을 승객들은 칭찬했다.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인정이 없는 방관자가 늘어났는지 모르나 차 안에서 지체 부자유의 노인이 서 있지만, 젊은이들은 방관하며 자리 양보를 하지 않는다. 방관자가 많은 사회는 죽음으로 간다는 방관자에 대한 실화를 영화로 촬영해 상영한 중국 영화 ‘버스 44’가 있어 소개한다.

2011년, 중국에서 어떤 여성 버스 운전기사가 버스를 운행하며 산길을 넘고 있었는데 양아치 3명이 기사한테 달려들어 성희롱하였다. 승객들은 모두 모른 척하

고 있는데, 어떤 중년 남자가 양아치들을 말리다가 심하게 얻어맞았다. 급기야 양아치들이 버스를 세우고 여성기사를 숲으로 끌고 들어가서 번갈아...

한참 뒤 양아치 3명과 여성기사가 돌아오더니 여성기사는 아까 양아치를 제지했던 중년 남자에게 다짜고짜 내리라고 하였다. 중년 남자가 황당해하면서, “아까 난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느냐?”고 하니 기사 소리가 지르면서 “당신이 내릴 때까지 출발안 한다!”라고 단호히 말했다. 중년 남자가 안 내리고 버티니까 승객들이 그를 강제로 끌어내리고 집도 던져버렸다.

그리고 버스가 출발했는데 기사는 커브 길에서 속도를 올려서 그대로 낭떠러지로 추락하였다. 전원 사망... 중년 남자는 아픈 몸을 이끌고 시골 산길을 터벅터벅 걸어다가 자동차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 교통을 통제하는 경찰관이 말하길 버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승객이 모두 사망한 사고라고 했다.

멀리 낭떠러지를 바라보니 자

신이 타고 왔던 그 버스였다. 그 여성 운전기사는 오직 살만한 가치가 있던, 유일하게 양아치들의 악행을 제지했던 그 중년 남자를 일부러 버스에서 내리게 하고서 모른 척 외면했던 승객들을 모두 지옥으로 데리고 갔다.

이 얘기는 중국에서 일어났던 실화인데 ‘버스 44’라는 영화로 제작되었다고 한다. ‘나 몰라라’ 방관하고 있던 손님들이 중년의 아저씨를 버스 밖으로 쫓아낼 때는 모두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우리는 이걸의 내용처럼 버스 안의 방관자는 아닐까 반문해 본다.

우리 사회가 올바른 도덕 사회가 되려면 방관자가 되지 말아야 하며 우리 아이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짐목의 방관자는 되지 말아야 하며 교육이 올바른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 부모에 대한 이웃에 대한 국가에 대한, 방관자는 죽음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 스스로 나를 돌아보고 방관자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남의 일도 내 일처럼 생각하고 돕는 인정 많은 인성을 길러야 한다.

방관자란 어떤 일에 자신은 직접 참여하지 않은 채 곁에서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인정이 많은 사람은 남의 일도 내 일처럼 생각하며 어려울 때 같이 울고 도우며 즐거울 때 같이 기뻐하고 축하한다. 그러나 인정이 없는 사람은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모른척하며 방관한다. 시내 복판길에서 싸움판이 벌어졌는데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으며 강자가 약자를 죽도로 구타 있지만, 경찰이 오기만 기다리고 방관한다, 산언덕 길가에 불이 타들어 가고 있지만, 지나는 차들은 아무도 멈춰 불 끌 생각을 안하고 ‘소방차가 와서 끄겠지!’ 하고 방관하며 지나다.

필자가 목포행 버스를 타고 가

독자기고

### 생명의 통로 비상구를 지키자



문병운 정충소방서장

위해 피난, 방화시설을 잘 유지 관리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장충소방서에서는 비상구를 폐쇄·훼손하는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현대 사회는 건물의 고층화, 밀집화 등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대형화재로 확대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대형인명피해의 우려가 상존한다.

지난 2017년에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화재 사고이다. 당시 건물 2층 사우나실 내부의 비상구 폐쇄가 주요원인이 되어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는바 비상구 폐쇄행위가 얼마나 위험하고,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기 등으로 인해 패닉상태에 빠질 수 있는데, 이때 생명의 길로 안내하는 비상구가 폐쇄되어 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비상구를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는 단순한 위반행위가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고객들의 안전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대상 건물은 공연장, 전시장 등 문화 및 집회시설, 백화점,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터미널, 역사 등 운수시설, 위탁시설,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비상구 폐쇄 또는 훼손한 경우를 발견한 이용자라면 누구든지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 하면 된다.

재난이 발생한 경우 비상구는 우리 모두의 생명을 살리는 길로 인도하는 문이다. 나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오늘 방문한 건물에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며, 다중이용업소 등 건물 관계자는 내 건물 내 가계를 찾아오는 소중한 손님을 위해 비상구를 상시 개방하고,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점검하여 화재 등 위험상황에 대비하도록 하자.

독자기고



임용찬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 성공적인 귀농·귀촌이 농업을 지키는 길이다

인구절벽은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특히 영농인구가 부족한 농업분야는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가 된다. 농업의 존립은 한나라의 식량주권과도 직결된 문제인 만큼 영농인구 부족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는데 제2의 인생설계와 맞물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방안이 귀농·귀촌 활성화이다.

정부 및 지자체도 귀농·귀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농식

품부 산하에 귀농귀촌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지자체도 각종 지원제도 및 상담창구를 마련하여 귀농귀촌을 장려하고 있다. 이런 지원제도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귀농·귀촌 희망자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일례로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된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미리 농촌에서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자는 최장 6개월의 주거 및 연수프로그램을 제공받으며 전국 80개 시군의 다양한 농촌 마을의 삶을 미리 경험할 수 있다. 귀농·귀촌

의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한 귀농정착지원금, 재취업 지원제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귀농·귀촌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귀농·귀촌은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성공적인 귀농·귀촌으로 농업을 지킬 수 있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농업을 지키는 길에 동참하기를 바래본다.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하다. 얼마 전 발표된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출산율은 0.84명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낮다. 출산율 감소가 인구절벽을 야기해 경기침체를 본격화 시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남도민일보

www.jndomin.kr 62234 광주광역시 풍영로 101번안길 19-2

회장 김경	대표전화 (062)227-0000	FAX (062)227-0084
발행·편집인 전광선	광고 (062)227-0000	구독료 월 10,000원
사장 이문수	등록번호 광주가25(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편집국장 윤규진		
주필 정기연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남도민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 면은 온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미담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실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2580@jndomin.kr 전화 (062) 227-0000

◆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4시** 굿모닝  
보석불가마  
사우나

혈액순환촉진  
각종노폐물배출!

첨단중양로152번길 31  
☎ 0507-1662-2207